뷝뷝뷝뷝-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마지막 동행길…극락왕생 기원

‘산자들의 축제’

네 발로 태어나 두 발로 살다 세 발로 마감하는 인생사.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천명(天命)이지만
저승으로 망자를 보내는 슬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리.
하지만 이들의 행렬은 죽음을 비단 비애로만 머물게하지 않는다.
또 다른 환생을 위해 떠나는 객(客)에게 무사히 잘가라고 길을 터 줄 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7호 상여와 회다지 소리
(가·양주;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보존회·회장 고명산)는
죽은자를 위한 산자들의 애도(哀悼)이면서 동시에
죽은자가 산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31>

제27호 상여와 회다지소리(양주)

닮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의 선소리꾼 최장환옹

‘ 간다간다 떠나간다 이승길을 하직하고/만당같은 집을 두고 문전옥답 다버리고/부모처자 이별하고 황천길로 떠나간다/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하고/한번가면 못오는길 황천길이 웬말이냐/이제가면 언제오나 오는날이나 일러주오/못가겠네 못가겠네 원통해서 못가겠네/일가친척 많다해도 어느누가 대신가며/친한벗이 많다해도 어느벗이 대신갈까/동기일신 많다해도 어느동기가 대신가랴 ’ - 긴 상여소리(후창 생략)

긴 상여소리는 발인에서 성분까지 이르는 장례절차에서 가장 처음 불리는 소리다.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망자의 한을 대변하며 상여 앞에 선 선소리꾼이 선창하면 상여꾼들이 ‘어허 어헤 어러리 넘차 어헤’라는 후창을 받아친다.

상여의 행렬은 죽은자의 이름을 새긴 명정을 선두로 공포(功布·베), 죽은자의 지인들이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만든 깃발인 만장(挽章), 혼백을 담은 요여(腰輿), 상여 옆에서 잡귀나 잡신을 쫓는 방상(方相), 상여를 장지까지 호위하는 운삽, 그리고 상여와 상주, 여상주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장지에 가까워지면 긴 상여소리에 이어 ‘인제가면 언제오나’로 알려진 자진 상여소리로 넘어간다. 긴 상여소리가 죽은자의 입장을 말한다면 자진 상여소리는 산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있는 셈.

상여가 장지에 당도하면 광정에 하관하고 달구질하며 회다지소리를 부른다. 양주 지역의 회다지소리에는 긴달고소리와 자진달고, 꽃방아타령, 어러러소리, 상사뒤소리, 새날리기 등 6가지가 있는데 먼저 회심곡 사설이 들어있는 긴달고소리를 하며 흙을 다지고 발로 밟는다.

‘긴 상여소리’ 떠나는 자를 대신한 슬픔…

‘자진 상여소리’ 산자의 안타까운 심정 노래

조금 지나면 자진달고로 이어지고 선소리꾼은 북을 치며 타령 한 장단을 메긴다. 그러면 달구꾼들은 ‘에헤라 달고’하며 받고는 봉분을 완성하고 퇴장할때까지 회다지소리의 전과정을 훑게된다.

양주소리의 선율은 대부분 경조(경기민요)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서북지역에 주로 쓰이는 소리조로 꿋꿋하고 화창한 느낌을 준다. 느린소리의 경우에는 서도지역 수심가처럼 심금을 울리는 슬픈 느낌을 주기도 한다. 가령 긴소리는 늦타령 장단에 슬픔을 자아내며 자진소리는 자진타령장단으로 돼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양주 상여와회다지소리는 1992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은 뒤 원형 복원 작업을 거쳐 98년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 백석읍 오산리에 전수관이 있으며 14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층은 30대 이상으로 최고령자는 선소리꾼 최장환옹(77)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순 없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상여와 회다지소리를 보존하자는 뜻으로 마을 청년들이 의기투합했다고 보존회장 고명산씨(53)가 전한다.

“김기주씨란 분이 있었는데 고령으로 더 이상 보존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의 사촌 김영기씨가 이어가다가 좀 더 젊은 사람에게 전수하고자 94년 당시 마을 청년회장이었던 윤창길씨에게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근동씨가 95년부터 청년회장을 맡으며 지난해까지 보존회를 이끌었고 올해부터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양주지역 ‘명당’ 많아 장례문화 발전

보존회 140여명 회원…협동심 자랑

각 지방마다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나름의 특성이 있는데 양주지역, 특히 백석면은 예로부터 소리가 꽤 유명했다고 한다. 마을 근처에 산성이 있어 삼국시대 이래 호국의 기틀이 되었고 주위 산세가 빼어나 역대 임금의 능이 많이 모여있는 명당자리가 많았다.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협동심이 강했습니다. 장례문화의 온전한 보전 또한 이웃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거라 할 수 있죠. 현재도 보존회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갖고 있지만 시연행사가 있을때에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내일처럼 참여합니다. 회원 가족 중 누군가 상을 당했을때 자신의 집안일인양 거드는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인지 고 회장을 비롯한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원들의 모습은 선한 인상을 갖고 있다. ‘죽음’ 혹은 ‘상여’란 단어가 주는 어두운 의미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상여와 회다지소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격, 죽은자를 매개로 한 산자들의 교감이란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교감은 바로 인정으로 연결된다.

“오는 16일에 시연행사가 있어요. 제2회 양주시전통민속축제에 참가하는데 관객을 위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를 보러온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잖아요. 특히 노인양반들에겐 막걸리라도 한 사발 대접해야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사는 맛’이란 고 회장의 말 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죽은자를 통해 산자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한다. 삶의 의미와 무게를 더하는 상여와 회다지소리, 그것이 바로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우리네 전통적 가치관이 아닐까 싶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닮최근 양주 상여와회다지소리 보존회는 대원군 부친의 묘를 연천에서 덕산군으로 이장할 때 쓰였던 상여의 틀과 가까운 형태의 상여를 제작했다. 상여 2층부분은 원형 그대로를 따 온 것으로 하나하나가 조각품 같다.

닮혼백을 담은 요여

뻨백가마는 상주 중에 노인이나 환자 등 장지까지 가기 힘든 유가족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들 보다 귀족층에서 사용됐다.

닮행렬 전의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원들의 모습